



임준혁 “나도 역대 연봉”

8천만원 경중 뎀 1억3천만원...심동섭 1억4천만원 '도장'

이흥구 125% 인상...서재용·김병현·나지완 5천만원 '뚝'

KIA 양현종 계약만 남아

프로 12년차 투수 임준혁(KIA)이 처음으로 역대 연봉 고지를 밟았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투수 양현종을 제외한 선수단 49명과 2016시즌 연봉 재계약을 끝냈다. 올 시즌 '뚝뚝'의 5강 싸움' 속에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인상자가 전체 49명 중 32명을 차지했다. 동결 7명, 삭감은 10명이다. 투수 임준혁이 5000만원에서 160% 인상된 1억3000만에 연봉 도장을 찍으면서 프로 데뷔 13년 만에 역대 연봉자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임준혁은 시즌 첫 선발 등판을 앞두고 허리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지만, 복

귀 후 안정감 있는 피칭을 이어가며 올 시즌 4.10의 평균자책점으로 9승6패를 기록했다. 6년차 좌완 심동섭도 9100만원에서 53.9% 인상된 1억4000만원에 재계약을 하면서 역대 고지에 진입했다. 강속구와 한승해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40% 인상됐다. 내야에서는 전천후 수비수 김민우가 9300만원에서 29% 오른 1억2000만원에 재계약을 끝냈고 최용규는 3400만원에서 5000만원(인상률 47.1%), 박찬호는 29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27.6% 인상됐다. 대졸 신인 김호령은 수준급 수비로 연봉이 122.2% 뛰어올랐다. 최저연봉 2700만원에서 시작한 김호령은 내년 시즌 6000만원을 받는다. 김다원은 5600만원에서

25%인상된 7000만원에 사인을 했다. 타이거즈 첫 포수 동반 두 자릿수 홈런을 합작한 이흥구와 백용환도 연봉이 인상됐다. 이흥구가 125.81%의 인상률과 함께 31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연봉이 뛰어올랐고, 백용환은 36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66.67% 인상됐다. 혼풍 속에서도 삭감된 연봉을 받은 이들도 있다. 현역 연장 의지를 밝힌 베테랑 투수 서재용이 1억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된(삭감률 41.7%) 7000만원에 재계약했다. 역시 맹장수술로 시즌 출발이 늦어졌던 투수 김병현도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연봉이 25% 삭감됐다. '예비 FA'인 나지완은 올 시즌 0.253의 타율로 7개의 홈런과 31 타점을 기록하는데 그치며 5000만원이 삭감(삭감률 20%)된 2억원에 연봉 협상을 끝냈다. 한편 이날 현재 미계약자는 투수 양현종 1명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서재용

2016년 丙申年 빛낼 원숭이띠 스타들



손홍민 (1992년생)

리우올림픽 메달 기대

2016년 병신년 새해를 앞두고 원숭이띠 스포츠스타들이 영광의 순간을 꿈꾸고 있다. 원숭이가 '재빠르다'는 의미로 잔나비라고 부르기도 하듯 특유의 스피드와 운동 실력을 바탕으로 국내 프로무대와 해외 빅리그, 리우 올림픽 등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각오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15년을 가장 빛낸 운동선수로 선정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홍민(1992년생)은 2016년이 기대되는 대표적 원숭이띠 스타다. 최근 교체출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한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축구 팬들의 기대는 여전하다. 손홍민으로서 리우 올림픽에와 일드카드도 출전, 동메달 이상을 딸 경우 군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2015년 프로축구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두고 격돌했던 1992년생 동갑내기 이재성(전북)과 황의조(성남)도 K리그 무대를 또 한번 휘젓고 다니겠다는 각오다. 중국 프로축구에서 연벤FC의 2부리그 우승과 1부리그 승격을 이뤄낸 박태하 감독(1968년생)도 1부리그 강팀과의 대결을 고대하



유창식 (1992년생)

'만년 유망주' 이제 그만

고 있다. 프로야구에서는 마무리에서 선발투수로 전환을 선언한 LG 트윈스의 베테랑 좌완 봉중근(1980년생)의 부활이 기대된다. 빅리그에서 뛰다 국내에 복귀, 2007~2011년 LG의 에이스 선발로 공을 뿌렸던 봉중근은 2011년 팔꿈치 수술 후 마무리를 맡아왔다. 내년 시즌 선발투수로 복귀를 준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011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프로 무대를 밟았지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KIA 타이거즈에 새 동지를 트는 '만년 유망주' 유창식(1992년생)도 내년에는 진면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넥센 히어로즈 영경업 감독(1968년생)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흙련왕' 박병호, 자유계약선수(FA)로 넥센을 떠난 마무리 손승락 등으로 투타에 생긴 공백을 극복해야할 숙제를 안고 새해를 맞는다. 프로농구에서는 대학시절 고려대와 연세대를 책임졌고 프로 데뷔 후에도 신인왕 등을 놓고 격돌했던 이승현(오리온)과 김준일(이상 1992년생·삼성)이 골밑에서 국내 선수의 자존심을 지킬 태세다. 장하나를 비롯, 이정민(이상 비씨카드), 이민영



봉중근 (1980년생)

선발 전환 부활 지켜보라

(한화) 등 1992년생들이 세계무대를 호령하겠다는 각오다.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의 금메달 사냥을 책임질 국가대표 유망주 중에는 유독 1992년생 원숭이띠들이 많이 눈에 띈다. 부상으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중도포기해야 했던 2012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도마의 신' 양학선(수원시청)은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런던 올림픽 사격 여자 25m 권총에서 금메달을 딴 김장미(우리은행)는 특유의 감성장을 앞세워 2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각오다. 런던 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 은메달리스트이자 12월 현재 올림픽랭킹 1위인 이대훈(한국가스공사)은 금메달에 재도전한다. 국가대표팀 발탁이 올림픽 메달보다 힘들다는 양궁에서는 올해 리우 프레올림픽 남자 개인전에서 우승한 김우진(정주시청)이 금메달을 쟁조준했다. 유도 남자부 김원진(양주시청·60kg급), 광동한(하이원·90kg급), 조구함(수원시청·100kg급), 탁구 정영식 등 1992년생들도 리우에서의 영광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국영 '올해의 선수상'

광주시체육회 선정

'한국 육상의 간판' 김국영(25·광주시청)이 올해를 빛낸 가장 뛰어난 선수로 꼽혔다. 광주시체육회는 28일 업무종합체육관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광주체육인의 밤' 행사를 열고 올해의 선수상 수상자로 김국영을 선정, 시상했다. 김국영은 지난 7월 열린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100m 한국 신기록(10초16)을 작성, 한국 육상의 희망을 쏘아 올렸다. 그는 제 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육상 단거리(남자 100·200m, 400·1600m 계주)에서 4관왕에 오르며 MVP에 오른 바 있다. 광주시청 양궁팀은 전국체전에서 종합 점수 1위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면서 '올해의 단체팀'으로 뽑혔다. 광주대 축구팀은 이근 정평열 감독은 광주 대표로 전국체전 축구 준우승을 차지한 지도력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올해의 감독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 감독은 축구 명문대처럼 체육특기생을 뽑지 않고도 대학 축구팀 기량을 끌어올린 공로가 인정됐다. 광주대 축구팀은 '2015 카페베네 U리그' 8관역 우승 등 4년 연속 지역리그 무패 우승이라는 값진 기록도 달성한 바 있다. 윤현필 명진고 소프트볼 코치는 올해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이외 전국규모대회 5관왕을 차지한 서석중 검도팀, 국내외 대회에서 한 단계 높은 기량을 선보인 유도의 김성연은 공로상을 받았다. 장래가 기대되는 꿈나무 선수에게 주는 미래상 수상자로는 정구 김원형이 뽑혔다. 한편, 전갑수 광주배구협회장은 이날 꿈나무 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인 재 장학금 1000만원을 내놓았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경기장 밖 선수들 훈훈하네



유니폼 대신 앞치마

프로야구 선수들 '자선 레스토랑' 개최 KIA 한기주·경찰청 안치홍 등 참여

프로야구 선수들이 조손세대아동을 위해 앞치마를 틀었다. 한기주 백용환 이흥구 홍건희 한승혁 박찬호(이상 KIA), 임준섭(한화), 최주환(두산)이 지난 27일 유니폼이 아닌 앞치마 차림으로 팬들 앞에 섰다. 이들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알랭'에서 '자선 레스토랑'을 열고 웨이터로 변신했다. 사랑 나눔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도 있었다. 대만에서 열린 월터리그를 치르고 귀국한 안치홍(경찰청)이 휴가를 맞아 반가운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했다. 김주일 kt 응원단장과 나윤승 KIA 응원단장은 마이크를 들고 행사 진행을 도왔다. 흥세완 타격 코치도 선수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을 보태기 위해 손님을 자리를 하기도 했다. 스포스피르티스, 야구친구, 비전코리아, 라본노스메틱, 보해도 행사 협찬에 나서 정성을 더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밤 10시가 넘도록 계속됐다. 추운 날씨에도 행사장을 찾은 팬들로 가게는 만석이였다. 점점 앞치마를 한 '건강한 웨이터'들은 실재없이 음식을 나르고, 자리를 정리하면서 분주한 일요일 저녁을 보냈다. 쏟아지는 사인 요청과 사진 촬영 요청에도 내내 밝은 표정이였다. 이날 행사장의 최고 인기 스타는 역시 안치홍이었다. KIA가 아닌 경찰청 선수로 자리를 한 안치홍은 식지 않은 인기를 과시했다. 모처럼 팬들 앞에 선 안치홍은 "남은 기간 부상 없이 열심히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인사를 하기도 했다. 한기주가 중심이 된 자선행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 한기주는 지난 2012년 12월 청소년대표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 김현수(볼티모어), 팀 후배 안치홍, 동성고 선배 이원석(두산)과 처음 자선행사를 열었다. 지난 1월에는 황재균(롯데), 정수빈·윤명준(이상 두산) 등이 '꿈을 주는 나누미'라는 이름으로 자선 일일호프에 참가, 조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수익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겨울에는 '자선 레스토랑'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친구·연인은 물론 가족 단위의 팬들까지 자리를 해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웨이터로 변신한 선수들은 자선 레스토랑·기부금 이벤트를 통해 모은 수익금을 조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수익금은 광주지역 조손세대 아동들이 나눔봉사캠페인에 쓰일 예정이다. 한기주는 "많은 사랑을 받고 사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추운 날씨에도 좋은 일을 위해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다.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이 꿈을 펼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한기주는 28일 오전 개인 훈련을 위해 후배 백용환과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했다. /서울=김여울기자 wool@

축구공 대신 고무장갑

광주FC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프로축구 광주 FC가 28일 광주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 봉사관에서 정원주 대표이사과 기영욱 단장, 남기일 감독, 주장 이종민을 비롯한 선수단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정환 9단 바둑대상 MVP 수상



부동의 국내랭킹 1위인 박정환(22) 9단이 생애 두 번째 바둑대상 최우수기사(MVP)상을 차지했다. 국내 랭킹 1위인 박정환은 28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2015 바둑대상에서 바둑 담당 기자로 구성된 선정위원단 투표에서 58%, 네티즌 투표에서 41%의 표를 얻어 합계 52.8%의 득표율로 MVP에 선정됐다. 박정환은 올해 제19회 LG배 우승, 제 27회 TV바둑아시아선수권 준우승, 제 58기 국수전 우승 등으로 맹활약하며 61승 21패, 승률 74.39%의 성적을 거뒀다. 특히 LG배 우승으로 2011년 후지스배 우승에 이어 4년 만에 생애 두 번째 세계대회 타이틀을 획득했다.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MVP를 받은 박정환에게는 순금 10만 메달이 수여됐다. /연합뉴스